

Surgical Management of Unstable Elbow Dislocation without Intra-articular Fracture: Surgical Findings and the Results of Early Stabilization and Mobilization in 20 Patients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Tae-Kong Kim, M.D. · In-Ho Jeon, M.D. · Poong-Taek Kim, M.D.

Background

불안정한 주관절 탈구의 평가와 치료는 다양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부 조직의 손상의 양상의 기술과 일차 인대 봉합후 보호하에 조기 운동에 대한 임상 결과의 보고이다.

Methods

20명의 연속된 관절내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외상성 주관절 탈구환자에 대해서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임상 양상, 방사선 사진, 수술중의 사진을 분석하였으며, 해부학적 수복은 금속 anchor 및 골 터널을 이용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 후 최소 24개월에 방사선 사진 및 Mayo Elbow Performance Score로 기능을 평가하였다.

Results

연대 견열은 MCL에서 55%, LCL에서 80%, 굴곡근에서 60%, 신전근에서 80%였다. 어떤 손상 형태에서는 brachialis와 전방 capsule손상의 높은 연관관계를 보였다. 평균적인 Mayo Elbow Performance Score는 93.2 점이었다. 동심성의 안정성은 임상양상 및 방사선적으로 모든 환자에서 보였다. Brachial 동맥 손상은 2례가 있었다. 관절낭 및 측부인대에 이소성 골형성이 14명의 환자(70%)에서 나타났고 1례에서 심한 외상성의 관절증을 보 보였다.

Conclusion

이 연구에서는 높은 빈도의 재부착 가능한 인대, 건/근육과 관절낭의 견열을 불안정 주관절 탈구에서 보였고, 급성 주관절 불안정 탈구의 환자에서 일차 인대 봉합과 조기 재활시에 수술 후 2~4년 경과 관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Key Words: Unstable Elbow, Ligament, Repair